

# 지혜와 분별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잠언 2:10-12, 흠정역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혼에게 기쁨이 될 때에는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 내리라.*

## 1. 지혜, 지식, 분별, 명철

이 잠언의 구절들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몇가지 정신적 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혜(Wisdom), 지식(Knowledge), 분별(Discretion)과 명철(Understanding)이 그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자산이 많지만 이러한 정신적, 영적 자산들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사례를 들어서 그런 실패한 인생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12:13-21]. 여러 부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이 파탄을 맞거나 자살로 불행하게 마치게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매우 발달한 요즈음에 우리는 약간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지식을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대언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예언하였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12:4].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일지라도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지혜는 인터넷에서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혜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와 더불어 분별이란 지혜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사려 깊게 내림으로써 자신의 영혼과 주위 사람들에게 보호와 사랑과 따뜻함을 제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와 분별이 풍족한 사람은 남과 주위 사물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명철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현자(賢者 Wise Men)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지극히 높은 권위와 능력과 뜻에 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이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겸허한 태도를 가지는 바로 그런 자세를 '하나님을 경외함 (fear of God)'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언 1: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10]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오늘날 소위 현대 신학자들이 옳지 않은 신학적 견해와 해석들을 많이 생산하고, 바르지 않은 전도자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오직 인기와 물질의 축적에 몰두하는 근본적 결함은 바로 그들에게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온 우주를 만드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잘못된 신학을 펼치거나, 성경의 진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 행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영적 자산이 없으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꺾어진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신학도들과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나서야 이를 기반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으며, 참된 예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 정죄와 분별

예수님께서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희가 판단 받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 7:1, 누가 6:37].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단은 정죄를 위한 판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는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보면 꼭 지적하고 “당신의 언행이 잘못되었으니 고치시요”라고 말하고 넘어가야 속이 편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잘못을 깨닫고 고치겠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남의 못된 행위를 고쳐놓아야 이 사회가 올바르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 수정의 책임을 스스로 떠 맡아 곧 바로 말과 행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자신의 결함들을 먼저 인정하고 고친 다음에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도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남의 잘못이 보이면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여 현명하게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6:3]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굿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요즈음 시대의 표적들은 우리에게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들은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 것이며, 자신과 가족의 영적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15-16]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악탈하는 이리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전도자들을 조심하되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며, 그들의 열매로 참된 하나님의 종인지 판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목사라고 모두 참된 종이 아니며 샅군들이 많고 심지어는 성도들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약탈하고 핍절하게 만드는 이리와 같은 전도자들도 많으니 성도들이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그들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2:10]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어떤 특정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달란트를 주님께 받은 사람은 다른 성도들을 교육시켜서 옳지 않은 영을 가진 전도자나 성도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그리고 백러시아 등의 나라들에서 독재자 또는 좌파 정권과 언론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함부로 침해하는 등 악한 행위들을 전혀

두려움이 없이 자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용기 있게 그런 잘못된 정권을 분별하여 국민들을 일깨우는 노력을 용기있게 하는 몇 목회자들과 학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분별하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분들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도록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들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히브리서 5:14]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러한 분별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히브리서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분별력의 원천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양날 달린 검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고 심지어 표현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하게 한다고 하니 참으로 무섭게 정확한 분별력의 원천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키피디아나 백과사전이나 지식 시스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크리스찬은 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먹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의 사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명하게 분별하고 선과 악을 정확히 가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어찌 그분의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어찌 대통령으로 뽑아 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적 생활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판단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